“ 피곤하다. ”

‘ 요즘 내내 그런 생각만 한 것 같다. 시간은 더디게 가고, 공무원이라 그런지 할 일은 너무 없고. ’

얼마 전에 드디어 M.A.M 사용 자격증을 따고 일자리를 얻게 될 수 있었다.

M.A.M은 기억을 추적할 수 있는 기계인데, 필요한 곳에서 사용 요청을 보내오면

먼저 스캔 부서에서 데이터를 만든 뒤, 우리 부서에서 이를 목적에 맞게 분석하는 일을 한다.

참, 처음에 M.A.M이 공개되었을 때가 떠오른다.

‘ 게임에라도 쓰이게 될까.. ’

생각하면서 흥미 있게 관련 기사들을 살펴보고 있었던 나는,

기억에 관련된 기계라는 말을 듣고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..

‘ 프로그램으로 구현된 피험자의 기억을… ’

이라는 구문을 보곤 결국 프로그래머가 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겠다 싶어서

그날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프로그래머를 그만두고,

국가 자격증이지만 허들이 낮다고 평가받던 M.A.M 자격증을 따기로 했다.

M.A.M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자면,

피험자의 무의식과 연관된 기억을 알아서 찾고 잘 맞춰지지 않는 기억은 퍼즐로 구현해서 이를 사용하는 사람이 퍼즐을 풀어나가며 기억끼리 맞출 수 있게 해준다.

잡다한 생각들을 하면서 가만히 M.A.M의 모니터만 바라보며 멍때리던 나에게, 이메일이 도착했다.

“ 스캔 부서 복 팀장..? ”

부서와 이름을 듣자마자 나는 새로운 일이 생겼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.

‘ 마침 심심하던 차인데 잘됐다. ’

라고 생각하며 이메일을 다 읽었다.

별 내용은 없었지만 정리하자면 소망병원이라는 작은 정신병원에서 의뢰가 왔고, 흰색에 공포감을 가지는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.

여기 사람 표시 아이콘을 누르면 됐었지. 참 맥없는 UI의 OS다. 누가 만들었는지 참.

‘ 화가인데 흰색에 거부감을 느낀다고?

참 기묘한 증상이네 ’

그렇게 생각하며 천천히 VR을 쓰고, 기억에 접속할 준비를 했다.

다른 사람의 기억에 들어간다는 느낌, 참 묘한 느낌이라고 생각하던 차에 접속에 성공했다.

접속에 성공하자마자 보이는 건 가정집인 것 같았다.

“ 투룸에 침대도 킹사이즈고.. 꽤 돈이 많은 사람인가?

요즘 집세가 엄청나게 올라서 혼자서 이렇게 사는 건 힘들 텐데? ”

현실에 대해 불평하다가, 서재로 보이는 방에 들어가자 세 개의 캔버스가 놓여 있었다.

그 중 하나의 캔버스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.

이 그림과 상호작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, 다가가서 상호작용해보니 역시나 다른 기억으로 이어져 있었다.

잠깐의 생각 후, 나는 주변을 살펴보다가, 기억 복제본이

“ 아마 이때 생애 처음으로 나루터에 와봤던 것 같아. 평소엔 오지 않으니까. ”

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.

‘ 누군가랑 같이 나루터로 여행 온 건가? ’

라고 생각하며 주변을 살펴보니 주변에 흰색 물감 튜브가 놓여 있었다.

아마 이걸로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던 차,

어떤 물체는 기억 속의 다른 물체들과 상호작용하여, 환자의 기억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정보가 떠올랐다.

한참을 헤맨 후에, 나는 이 물감 튜브가 물체의 색깔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.

텐트 앞의 놓여 있는 캔버스의 스케치에 가까이 가자,

색깔을 흡수한 물감 튜브에서 색이 빠져나가 그림으로 들어갔다.

“ 그림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색을 모으면 되는 건가 ? ”

어찌저찌 텐트와 의자의 색깔을 빼낸 나는 한가지,

해가 떠오르는 호수의 그림이 색깔이 차오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

‘ 무슨 호수 색깔이라도 빠지나? . ’

색깔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나는, 부둣가에 멈춰있는 나룻배를 보았다.

‘ 설마 이 배를 타고 저기 떠있는 해라도 가봐야 하는 건가? ’

해에 마침내 배가 닿아 멈추자, 처음 듣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.

‘ 노을 지는 해는 정말 예쁜 것 같아. 그렇지? ’

이어서 기억도 한 마디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.

‘ 그런가.. ’

‘ 들린 목소리는 아마 기억의 주인과 같이 여행 온 사람 같은데… ’

아마 이 기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 같아 보였다.

말이 끝나기 무섭게 해의 색깔이 전부 물감 튜브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,

이내 물감 튜브를 전부 채웠다.

그와 동시에 주변이 어두워졌다.

“ 이거면 노을 지는 호수가 그려지려나? ”

그림 근처로 가니 물감 튜브에서 색이 빠져나가

그림의 마지막 남은 빈 공간을 채웠다.

‘ 노을 지는 저 해를 보며 저 해가 잡고 싶다고 말했었어. ’

기억의 말에 대해 생각할 시간도 없이, 섬광이 반짝이더니 다른 공간으로 이동되었다.

주변을 돌아보니 아까 봤던 풍경의 집 안이었다..

“ 왜 집에 돌아온거지? ”

알 수는 없었지만 기억은 원래 중구난방이니, 다시 달라진 건 없는지 살피기 시작했다.

얼마 지나지 않아, 서재에 있는 그림 세 개 중에 하나의 그림이 더 그려진 걸 확인했다.

“ 에메랄드 그림인가? ”

그림을 살펴보던 차, 그림과 상호작용해보자 다시 다른 기억으로 이어졌다.

주변을 살펴보니 일종의 미술관 같은 장소인 것 같았다.

이번 기억도 분명 환자와 관련됐을 거라고 생각해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 할 때쯤.

‘ 여자친구와 미술관에 가곤 했었어. ’

기억이 말하자, 나는 지나온 나루터에서 들렸던 여성의 목소리는 이 사람의 여자친구일 것이라고 금방 추측해낼 수 있었다.

‘ 쳇.. 부럽네.. ’

잠깐 딴 생각을 하긴 했지만, 나는 앞에 보이는 그림 앞으로 다가섰다.

가까이 다가가자, 그림 밑에 버튼들이 놓여져 있고 오른쪽에는 완성된 그림이 작게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.

어디에 쓰는 버튼인지 알 수가 없어서, 한번 눌러보기로 했다.

찰칵.

버튼 눌리는 소리와 함께, 앞에 있던 그림의 작은 부분만 색깔이 변했다.

‘ 아마 버튼마다 각자 구역의 색깔을 바꿀 수 있게 되어 있는 거 같은데? ‘

완성 되어 있는 그림에 맞게 색깔을 바꾸자, 기억이 말하는 것이 들렸다.

‘ 오래된 작품이야. 추상화. ’

기억이 말했다.

‘ 추상화가 오래됐다니 신기하네. ’

라고 생각하며 주변에 걸려있는 다른 그림들도 색깔을 맞추기로 했다.

나머지 두 그림들의 색깔을 맞추자, 다음 구역으로 가는 길을 막던 벽이 사라졌다.

‘ 아마 이 벽이 기억들을 막고 있는 벽이겠지? ’

라고 생각하며 다음 구역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.

구역 사이의 코너를 돌자, 슬라이드 퍼즐이 눈에 띄었다.

‘ 아.. 퍼즐은 질색인데.. ’

주로 이런 물체들에 기억이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나는 투덜대면서도

어쩔 수 없이 퍼즐을 풀기 시작했다.

수십 번을 움직이고 움직이며 뜯어낼까 생각도 했지만,

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한 그림을 맞출 수 있었다.

“ 중학생 쯤엔 이런 퍼즐도 좋아했었는데 ”

기억이 중얼거리는 것이 들렸다.

‘ 아마 이 사람의 어릴 적 추억과 원래 있던 그림이 합쳐진 것 같아 ’

그렇게 생각하며, 나는 다음 그림으로 발걸음을 옮겼다.

다음 그림을 딱 마주치자, 나는 머릿속에서 무언가 떠오르는 듯 했다.

‘ 어디서 많이 본.. 그림인데? ’

그러자 기억이 끼어들었다.

“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이야. 별이 빛나는 밤 ”

“ 알고 있다고.. ”

나도 모르게 대답을 한 나는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고,

이번 퍼즐도 다 맞춘 후엔 다음 그림도 다 맞출 수 있었다.

‘ 으.. 역시 퍼즐은 질색이야 ’

귀찮은 퍼즐을 지나고 보니, 다음 구역에는 그림이 아닌 조형물이 있었다.

“ 언젠가는 나도 이런 작품을 하나 정돈 만들고 싶었어 ”

기억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림을 보며 생각하였다.

‘ 흠.. 앞에서 보면 하나의 그림처럼 보이는 그런건가? ’

자세히 보니 그림끼리 각도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.

‘ 설마 내가 돌려서 맞춰야 하는거야? ’

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었지만, 귀찮게도 수작업으로 전부 맞췄다.

“ 휴.. 드디어 다 맞췄네 ”

다 맞추고 보니 일종의 나비 그림 같았다.

“ 언젠가는 할 수 있을거야. ”

기억 속 여자친구의 목소리가 들렸다.

‘ 확실히 이번 기억에선 여자친구가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나보네 ’

라고 생각하며 다음 구역으로 이동하기로 했다.

이번엔 그림들이 조각조각 나뉘어져 아래에 떨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.

‘ 기억을 떠올리려면 원래 그림대로 맞춰줘야겠지.. ’

반쯤 포기한 채, 그림 조각들을 하나하나 그림에 끼워 맞추기 시작했다.

하나같이 특이한 그림들이어서 맞추기 힘들었지만, 다 맞추고 보니 다들 추상화였다.

‘ 아마 기억의 주인은 추상화를 좋아했나 보네. ’

그림 세 개를 전부 맞추자, 가운데에 놓여있는 에메랄드에 접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알 수 있었다.

‘ 이번 기억의 중점은 가운데 전시된 에메랄드겠지? ’

에메랄드가 전시된 케이스에 가까이 가자, 빨간 버튼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.

별 생각 없이 우선 버튼을 누르자, 케이스의 유리가 내려가며 에메랄드가 내 앞으로 떨어졌다.

“ 에메랄드는 변하지 않는 행복은 상징한다고 했었나. ”

기억이 말하는 것이 들렸다.

잠깐의 화면 점멸 후,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.

다시 집 안으로 돌아왔지만, 거실의 큰 그림에 한 부분이 더 그려진 것을 알 수 있었다.

‘ 아마 그림 하나하나가 이 큰 그림의 기억조각이 되는 것 같아 ’

라고 추측하며, 다시 서재로 돌아가 무언가 변한 게 있나 살펴보았다.

세 개의 그림 중에서 남았던 하나가 그림으로 채워진걸 확인했다.

‘ 이제 마지막 그림인가 ’

나름 비장한 각오를 다진 나는 마지막으로 채워진 나비 그림 속으로 들어갔다.

다시 한번 더 화면 점멸이 일어 난 후, 나는 다시 주변을 살펴보았다.

‘ 아마 산속의 공원 같은 느낌인데. ’

라고 생각하자, 기억이 말하는 것이 들렸다.

“ 자주 같이 들렀던 공원이야. ”

아마 이번 기억이 마지막 순서를 차지한 만큼, 여러가지 정보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,

산책로처럼 된 길을 앞으로 걸어갔다.

그러자, 앞에 놓여져 있던 나비가 가려는 방향으로 날아간 뒤 사라졌다.

‘ 아마 저 나비가 기억의 이정표 같은 역할이겠지? ’

나비가 갔던 방향으로 계속 가자, 앞에는 기억의 벽과 나무 그루터기가 있었고 나비가 그 위에 앉아있었다.

“ 그루터기에 같이 걸쳐 앉아 있는 것도 좋아했어. ”

“ 밤에는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았거든 ”

“ 왜 놔둔건진 모르겠지만. ”

기억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.

‘ 아마 헤어진 직후에도 이 장소에 왔었던 걸로 보이네 ’

‘ 그렇다면 뭔가 많은 기억이 얽혀있을지도 몰라 ’

그렇게 생각하며 계속해서 앞에 놓여진 길대로 나아가기로 했다.

길이 꽤 길어서 그런지 벤치가 둘 놓여있는 것이 보였다.

‘ 체, 나름 공원이라고 벤치도 있군 ’

그냥 벤치라기엔 좀 별난 디자인의 벤치를 지나치며, 가운데에 뭔가 올려져 있던 흔적이 있는 공간에 도착했다.

‘ 조각상 같은 게 놓여져 있었을 거 같은데? ’

그냥 지나치려고 생각을 하던 나는 기억이 막혀있음을 알 수 있었다.

‘ 이 조각상을 어떻게든 해야 지나갈 수 있겠는데 ’

라고 생각하며 주변을 돌아보자, 조각상이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.

‘ .. 원래 모양으로 붙여달라는 거겠지. ’

금방 주변에 흩어져있던 조각들을 모두 맞추자, 나비가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.

“ 이런 조각상에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 ”

“ 의미는 보는 사람이 붙이기 나름 아닐까? ”

기억 속에서 서로 대화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.

‘ 정말 이런 것 때문에 흰색이 싫어졌다고? ’

무언가 의아함을 느꼈지만, 나는 이번 그림도 마무리하기 위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.

조금 긴 길을 따라 쭉 나아가자, 이번엔 팔각정자가 눈 앞에 들어왔다.

‘ 이번 기억은 길이가 좀 긴 편이네 ’

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정자의 계단에 발을 디뎠다.

“ 공원에서 가끔 보이는 나비는 정말 예뻤는데. “

아마 아까부터 보였던 파란 나비에 대한 이야기 인 것 같았다.

‘ 정자 안에 캔버스가 놓여있네? ’

정자 안으로 올라오자 눈 앞에 캔버스가 보였고, 난간에는 붓과 물감이 보였다.

“ 그 나비가 꼭 그리고 싶었어. ”

기억이 이런 말을 함과 동시에, 난간의 빈 공간에 파란 나비가 앉았다.

캔버스에 가까이 다가가자, 캔버스에 이미 스케치가 되어 있음을 알아챘다.

‘ 음.. 설마 내가 그려야 하는 건 아니겠지? 그림은 영 소질이 없었는데.. ’

잠깐 당황하긴 했지만 어떻게든 해보려고 옆에 있는 붓에 물감을 묻혀 캔버스 가까이 대자,

붓에서 색깔이 빠지며 알아서 그림에 색깔이 채워지기 시작했다.

‘ 내가 그리진 않아도 되네.. 다행이다 ’

살짝 안심하며 이내 옆에 놓여있던 물감들을 하나씩 찍어, 그림을 전부 완성시켰다.

“ 나비.. 그림을 그렸네 결국 ”

“ 뭘까.. 왠지 허망한데. ”

기억이 그렇게 말했다.

‘ 헤어진 것만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.. ’

무언가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던 차, 번쩍하고 섬광이 지나갔다.

다시 기억 속의 집으로 돌아왔다.

이번엔 침대 앞에 놓여있던 큰 그림이 완성된 것을 알 수 있었다.

‘ 아마 이 그림이랑 상호작용 하면 끝이겠군 ’

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집 안을 둘러보았지만, 별 다른 차이점은 찾지 못했다.

기억 속에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는 느낌이 들지만, 별 수 없으니 나는 기억을 그대로 종료하고

일을 끝마치기 위해 보고서를 적기 시작했다.

“ 쳇, 사건은 계속 바뀌는데 왜 보고서 양식은 똑같냐고.. ”

여기서 잠깐만 보고서의 양식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,

첫째, 기억 분석 요구기관에서 보낸 질문에 답한다.

둘째, 내가 적고 싶은 말들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.

‘ 기억에서 주인 외에 자주 보인 인물이 있습니까? ’

잠시 생각해보니 여자친구 외엔 다른 인물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.

그 질문 외에도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 작성하고 보니, 여자친구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다는 점을 발견했다.

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’

‘ 여자친구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중점으로 관련 기억을 좀 더 알아봐주세요 ’

보고서를 다 썼다. 나는 이제 좀 쉬어야겠다.

.

.

.

며칠 뒤, 내가 썼던 보고서를 받은 곳에서 연락이 왔다.

‘ 안녕하세요, 저번에 기억 분석 관련해서 의뢰를 했던 소망병원의 상담사입니다.

결론부터 말하자면, 지난번에 분석해주신 부분은 환자의 치료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

환자의 기억이 충격으로 사라진 부분이 있어, 환자의 주변인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.

환자의 개인 정보라서 이야기 해드리진 못하지만, 주변인에 대한 언급이 상담의 실마리가 되어 상담의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’

“ 음.. 역시 기억이 잘려있던 게 맞았네. ”